

일차의료에서의 커뮤니티케어

이 덕 철
연세대의대

심포지엄 : 커뮤니티케어,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노인의 약 50%가 세 개 이상의 복합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료비도 급속히 상승하여 머지 않은 미래에 우리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내 의료시스템은 급성기질환의 치료를 위한 첨단 의료 지식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했지만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영역의 성과는 매우 뒤쳐져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즉 암의 5년생존률,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의 치료 성과는 OECD국가중 상위 권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관리와 이들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율은 43.8%, 그리고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조절율은 27.2%에 머물고 있으며, 이 때문에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 국가 평균의 1.5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일차의료의 기능과 역할이 절실히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5년 OECD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여년동안 우리나라의 병실 증가율이 세계 최고수준이다. 즉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중점을 두기 보다, 합병증이 발생한 이후에 급성기 질병 치료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케어의 큰 틀 안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행태 개선과 위험요소 평가와 관리, 그리고 임상지침에 따른 만성질환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대한 가정의학회는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추진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고자 한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이로 인한 여러 경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나라에서 팀을 기반으로 하는 일차의료를 중점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커뮤니티 케어의 계획의 중요한 성공조건으로 지역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보건학적인 측면과 함께 개인별 건강을 평가하고 질병을 최적인 상태로 관리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주치의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복합상병을 갖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주치의 제도는 더욱 필요하다. 또한 주치의를 중심으로 간호사, 건강상담사, 사회사업가 등으로 구성된 일차의료팀의 활동이 보장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역사회 보건과 개인 의료가 함께 이루질 때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의학적 필요가 충족됨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것이다.